

조선시대 동관왕묘의 인식 변화

윤종훈/지해
인

- I. 조선시대 관왕묘의 첫 등장
- II. 외국 신을 향한 조선의 반응
- III. 동관왕묘의 공간적 역할
- IV. 구한말의 동관왕묘
- V. 현대의 동묘공원과 동관왕묘

임진왜란과 관왕묘의 첫 등장



政院以陳遊擊接伴官李屹書啓, 啓曰: "前日陳遊擊於下處後園上, 仍舊家, 立關王廟, 設塑像, 功役則時未完了矣。即者遊擊招謂臣曰: '俺昨日拜楊老爺, 稟以立廟之意, 則楊爺稱善, 即爲來見曰: 「廟殿甚爲卑隘, 當改構新殿, 左右設長(廟), 前庭立重門, 以爲永遠之圖, 不可如是草草。」仍給報施銀五十兩而去。麻爺今日亦送五十兩, 邢軍門、陳御史、梁按察, 亦必依此送之矣。且曰: '他餘功役, 當以我軍使喚, 至於木手、泥匠等, 則必得貴國善手者用之。此事非爲我也, 正爲貴國大事。此意國王不可不知' 云。大概遊擊於立廟一事, 極其誠悃, 親自監董, 多言關王靈驗之事, 而涉於虛誕, 不敢一一陳達矣, 觀其意, 則蓋欲自上如經理所爲者, 而但不明言之爾

정원이 진 유격(陳遊擊) 접반관 이屹(李屹)의 서계(書啓)로 아뢰기를,
 "전일에 진 유격이 하처(下處) 후원(後園) 위의 구가(舊家)를 그대로 이용하여 관왕묘(關王廟)를 세우고 소상(塑像)을 설치하였는데 공역(功役)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유격이 신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어제 양 노야(楊老爺)를 뵈고 사당 건립 문제를 여쭙었더니 양 노야가 좋다고 하면서 즉시와 보고는 하는 말이 「묘전(廟殿)이 너무 낮고 좁으니 전각을 새로 짓고 좌우에 장묘(長廟)를 세울 것이며, 앞 뜰에는 중문(重門)을 세워 영원히 존속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초초(草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어 보시(報施)로 은(銀) 50냥을 내놓고 갔다.

마야(麻爺)도 오늘 50냥을 보내왔고, 형 군문(邢軍門)·진 어사(陳御史)·양 안찰(梁按察)도 필시 그 정도로 보내올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다른 나머지 공역들이야 의당 우리 군사들을 시킬 것이나 목수(木手)·이장(泥匠) 등은 귀국의 솜씨 좋은 자들을 불러 써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국의 대사(大事)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그 뜻을 국왕께서도 꼭 아셔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유격이 사당을 건립하는 일에 매우 열성이고 감독도 친히 하면서 관왕(關王)의 영험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는데, 말이 너무 허황되어 날날이 아낄 수는 없으나 그의 뜻은 대개 상께서도 경리가 하는 것처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만 분명히 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현재의 남관왕묘(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로23길 278)

"關王廟設立事, 前日使之周旋, 令設於興仁門外造山近處, 而今使設於南大門外。前日之教, 不能圖之乎? 何無黑白耶? 南大門外既有關王廟, 不宜疊建。須於東大門外爲之。其所以然者, 有微意。予曾聞天朝人之言矣。今次卜地, 初出於葉靖國, 若圖之於靖國, 則事或可就。卿不能圖之, 則靖國, 海平知之, 若令海平, 往見靖國, 善爲辭說, 令於東大門外, 設立如何? 倘東大門外爲不可, 則訓練院近處可矣。本院乃鍊習武士之地, 而設立關王廟於其處, 卽古者立武成王廟之遺意也。旣以東方爲吉, 則城內城外, 並爲參商議啓。言于禮曹。"

"관왕묘(關王廟)의 건립에 관한 일을 전일 주선하도록 하여 흥인문(興仁門) 밖의 조산(造山) 근처에 설립하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남대문(南大門) 밖에 설립하겠다고 하니, 전일의 하교대로 도모할 수 없어서인가, 어찌하여 분명하게 못하는가? 남대문 밖에는 이미 관왕묘가 있으니, 또 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모름지기 동대문 밖에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이다. 일찍이 중국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다. 지금 다시 세울 곳을 고르는 일은 애초 섭정국(葉靖國)으로부터 나왔으니, 만일 정국에게 이 일을 꾀한다면 일이 흑 될 듯도 싶다. 경이 꾀할 수 없다면 정국(靖國)을 해평(海平)이 알고 있으니 만일 해평으로 하여금 정국을 찾아가 만나 잘 설득하여 동대문 밖에 설립하게 하는 것이 어떨겠는가? 혹시라도 동대문 밖이 불가할 경우에는 훈련원(訓練院) 근처가 좋겠다. 본원은 바로 무사(武士)들을 연습시키는 곳이니, 관왕묘를 그곳에 설립하는 것은 곧 옛날 무성왕묘(武成王廟)를 설립하였던 유지(遺志)이다. 동방(東方)이 길(吉)한 곳이라고 하니 성안이나 성밖이나 아울러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예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29일 무인 3번째기사 에서



현재의 동관왕묘(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84)

선조의 동관왕묘 건립 추진



備邊司啓曰: "關王廟行禮事, 我國前者未有此等禮節。且明日則太爲急迫, 難依天將所言施行。唯慮經理、提督先到, 而請主上則似爲難處。然以奠儀未備, 禮節未講, 又不曾致慮, 不敢輕詣廟下之意答之, 而令禮官, 博考可據之儀, 講定施行, 恐爲無妨

비변사가 아뢰기를,

"관왕묘(關王廟)에 행례(行禮)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 전에는 이런 예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례하는 것은 너무 급박하니, 중국 장수가 말한 대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경리·제독이 먼저 도착하여 주상(主上)을 청할 경우에는 난처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전의(奠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예절을 강정(講定)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또 일찍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계로 감히 경솔히 관왕묘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 답변하소서.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12일 병신 6번째기사 에서

○禮曹啓曰: "關王廟致祭之儀, 我國前所未有, 而禮節未講, 固難率爾處之。但天將固請, 則勢不得已, 姑依備邊司啓辭, 只行焚香致敬之儀何如?" 傳曰: "依啓."

예조가 아뢰기를,

"관왕묘에 치제하는 의식은 우리 나라에서는 전에 없던 것으로 예절을 아직 강정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경솔하게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장수가 굳이 요청하면 형편상 그만둘 수 없으니 우선 비변사의 계사(啓辭)대로 분향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식만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12일 병신 7번째기사 에서

持平宋應洵等來啓曰：“關王廟行禮，雖不得已，幕次前設雜戲之事，則似涉戲玩，非人君所可觀也。請接見後，以權辭周旋，速爲還宮。” 答曰：“雜戲則未安，而天朝所爲之事，周旋止之爲難。酒禮自此請撤，事勢亦難，不得從。”

지평 송응순(宋應洵) 등이 와서 아뢰기를,

"관왕묘에 행례하신 것은 부득이해서였다고 하더라도 막차(幕次) 앞에 잡희를 베푼 일은 희롱하는 것인 듯하니, 상께서 관람하실 것이 못됩니다. 접견하신 후에 권사(權辭)로 주선하시고 속히 환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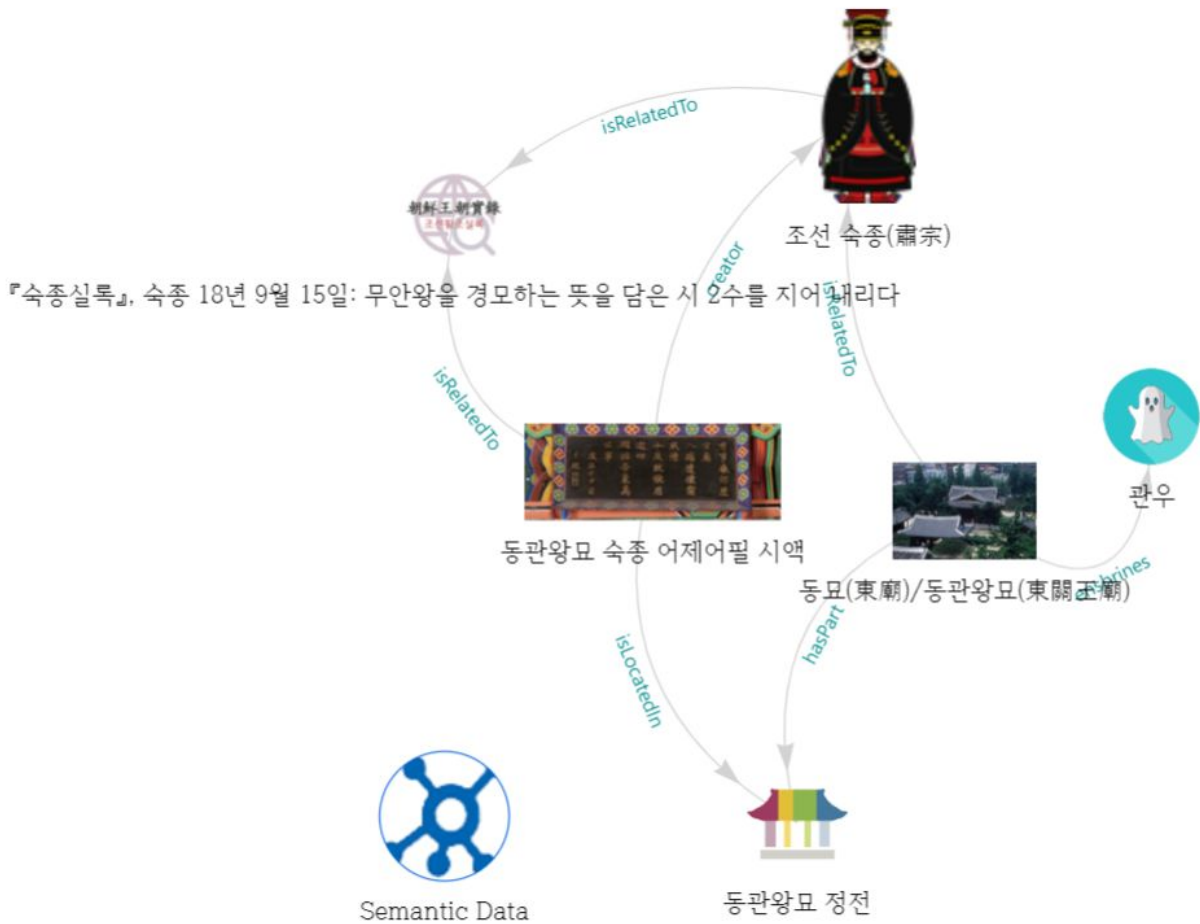
"잡희를 관람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하는 일을 중지시키라고 주선하기는 어렵다. 주례(酒禮)를 이로부터 거두도록 요청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니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14일 무술 3번째기사 에서

- ❑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들의 신앙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서울의 관왕묘들.
그러나 선조와 신하들은 외국의 장수에게 한 나라의 국왕이 예(禮)를 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 ❑ 전쟁이 끝난 이후 국내정세의 불안정함 등으로 인해 명나라의 관왕묘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고, 조선의 국왕들도 선조 이후로는 관왕묘의 보수와 관리에만 일부 신경썼을 뿐, 직접 행차하여 예(禮)를 행하는 일이 없어졌다.

관우를 경모했던 숙종



壬午/上詣貞陵展謁後, 行酌獻禮, 還至沙河里, 登壇閱武。仍命牽來太僕馬三匹, 分賜三大將。上引宋 太祖歷謁武成王故事, 將於回轡之路, 駐駕武安王廟, 入瞻遺像, 令諸大臣講定節目。左議政睦來善以爲: "宜倣周王式商容之間, 行式禮。" 右議政閔黯則以爲: "不宜拜, 且不宜式, 當舉手楫。" 上從黯議。三司請對, 以無國朝前例, 請停歷入之舉。上曰: "武安王萬古忠義, 素所嘉歎。既過其門, 油然而興感, 入瞻何妨?" 不從。

임금이 정릉(貞陵)에 가서 전알(展謁)하고 나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돌아오다가 사하리(沙河里)에 이르러 단(壇)에 올라 열무(閱武)하고, 이어서 태복마(太僕馬) 세 필을 끌어오도록 명하여 세 대장(大將)에게 나누어 주었다. 임금이 송 태조(宋太祖)가 무성왕(武成王)의 사당에 들어 전알한 옛일을 따라 장차 돌아가는 길에 무안왕(武安王)의 사당에서 대가(大駕)를 멈추고 들어가 유상(遺像)을 보려고 대신들을 시켜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은 주무왕(周武王)이 상용(商容)의 여문(閭門)에서 식례(式禮)를 거행한 것을 본떠서 거행해야 한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은 배례(拜禮)하지 말아야 하고 식례를 거행하지도 말아야 하며 손을 들어 읍례(揖禮)하여야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민암의 의논을 따랐다.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여 국조(國朝)의 전례가 없다 하여 들르는 일을 멈추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무안왕의 만고(萬古)의 충의(忠義)는 평소에 아름답게 여겨 감탄하는 바이다. 이미 그 문을 지나니 새롭게 느낌이 일어나는데, 들어가 본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따르지 않았다.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2월 26일 임오 1번째기사 에서

관우를 경모했던 숙종



辛酉/上自製二首詩，以御筆鏤板以下曰：“一卽曾題武安王廟者，一卽歷入武安廟有感而作者也。其令分揭于東南關王廟，以表予敬慕之意……”

임금이 시(詩) 2수(首)를 지어 어필(御筆)로 써서 목판(木板)에 새겨 내리면서 이르기를, "하나는 일찍이 무안왕(武安王)의 사당을 글제로 한 것이고, 하나는 무안왕의 사당을 지나가다가 느끼는 바가 있어 지은 것이다. 나누어서 동쪽과 남쪽의 관왕묘(關王廟)에 걸어 두어, 나의 경모(敬慕)하는 뜻을 표하라."

-숙종실록 권24, 숙종 18년 9월 15일 신유 1번째기사 에서



有事東郊歷古廟，入瞻遺像肅然清。今辰致敬思愈切，願佑東方萬世寧

동쪽 교외에 일 있어 고묘 지나다가
들러보니 맑은 유상 숙연했도다.
이번은 공경하는 마음 더욱 간절해지며
우리 동방 만세토록 편케 해주기 소원이로다.

-동관왕묘 숙종 어제어필 시액

上頃年, 幸關王廟, 拜揖當否, 未及考據, 只行揖禮, 命考出宣廟朝舊禮於實錄曝曬時。史官書啓以爲, 宣廟行再拜, 上命今後依此行拜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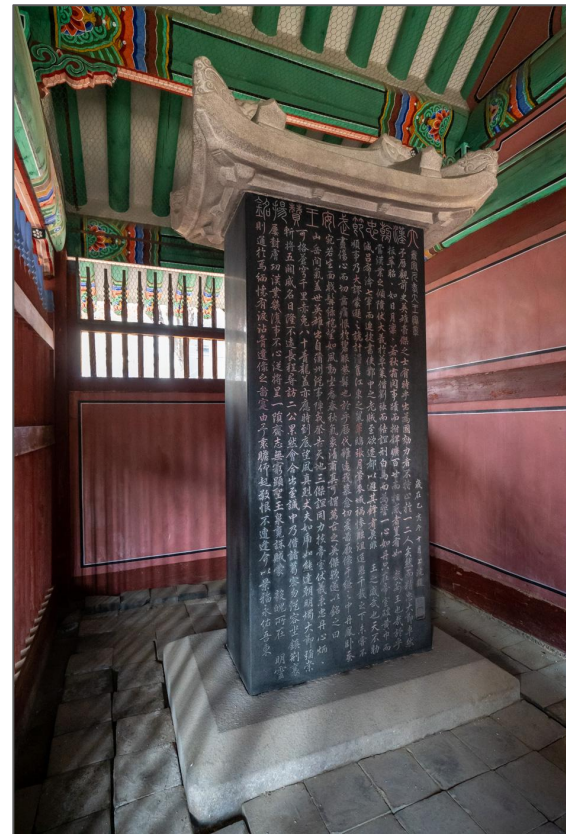
임금이 지난해에 관왕묘(關王廟)에 거동하여 배음(拜揖)해야 하는지의 당부(當否)를 미처 상고하지 못하여 단지 읍례(揖禮)만을 행하고, 명하여 선묘조(宣廟朝)의 구례(舊禮)를 《실록(實錄)》을 포쇄(曝曬) 할 때에 상고하여 내라고 하였다. 사관(史官)이 서계(書啓)하여 이르기를,

"선묘(宣廟)께서는 재배(再拜)를 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 뒤로는 이에 의하여 배례(拜禮)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숙종실록 권50, 숙종 37년 6월 25일 계미 2번째기사 에서

- ❑ 관왕묘를 재인식하고 관왕묘에 대한 행례(行禮)와 배례(拜禮)를 관행화한 숙종.
- ❑ 국왕의 위치에서 관왕묘에 참례(參禮)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신하들에게 충의를 다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하였다.
- ❑ 재임 당시 봉당의 경쟁체제로 인해 약해지는 충성심과 왕권을 재확립하고자 했던 숙종의 의도가 엿보인다.



동관왕묘 서무와 비석



정전 내 영조 어제어필 시액(1743년 영조19)



정전 내 영조 어제어필 편액
'현령소덕무안왕묘'(1746년 영조22)



정전 내 영조 어제어필 편액
'현령소덕무안왕묘'(1746년 영조22)



정전 내 영조 어제어필 시액
'만고충절 천추의열'(1761년 영조31)

上如南關王廟, 具袞龍袍、翼善冠, 行再拜禮, 又臨東關王廟如初。

임금이 남관왕묘에 가서 곤룡포와 익선관을 갖추고 재배례를 행하고, 또 동관왕묘에 임어하여서도 처음과 같이 행하였다.

-영조실록 권64, 영조 22년 8월 28일 신묘 1번째기사 에서

- ❑ 남대문과 동대문 인근에 설치된 관왕묘는 국왕의 외부 행차시 필수적으로 지나치게 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한성을 드나드는 백성들이 가장 많이 지나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 ❑ 영조는 이러한 관왕묘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관왕묘 참례(參禮)를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
- ❑ 영조는 1744년 관왕묘에 대한 의례를 재정비하여 그 내용을 『속대전』에 명문화하여 관묘제를 공식화하였다.

찾아진 고종의 관왕묘 참례



찾아진 고종의 관왕묘 참례

還宮時。 歷拜東關王廟。

환궁(還宮)시 동관왕묘(東關王廟)를 두루 전배하였다.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 9월 5일 신유 2번째기사 에서

自綏陵齋室還宮, 歷拜東關王廟, 行奠酌禮。

수릉(綏陵)의 재실(齋室)에서 환궁하다가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두루 전배하고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고종실록 권5, 고종 5년 8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 에서

自光陵還宮時, 歷拜東關王廟。

광릉(光陵)에서 환궁할 때 동관왕묘(東關王廟)를 두루 전배하였다.

-고종실록 권6, 고종 6년 3월 15일 정해 1번째기사 에서

詣崇陵, 展謁。 還詣綏陵, 行辭陵禮。 仍爲還宮, 歷拜東關王廟。

숭릉(崇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다시 수릉(綏陵)에 나아가 사능례(辭陵禮)를 행하였으며, 이어 환궁(還宮)하는 길에 동관왕묘(東關王廟)에 참배하였다.

-고종실록 권11, 고종 11년 8월 12일 임오 1번째기사 에서

- .
- .
- .
- .
- .
- .

고종의 관우 추승



顯靈昭德義烈武安聖帝廟(현령소덕의열무안성제묘)
-동관왕묘 정전의 고종의 어제 현판

- 1897년 고종의 황제 칭제 이후, 1901년 ‘顯靈昭德武安關王(현령소덕무안관왕)’이라 칭하던 관우를 황제로 올리는 존제승호를 통해 ‘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현령소덕의열무안성제)’로 추승하였다.

敎曰: "新建北關王廟, 今已畢役。 祭式與諸般儀節, 依東南廟例爲之。 關西建廟, 亦有年所。 香祝封送之節, 依星州、安東例爲之。 令本道臣行祭。"

전교하기를,

"새로 세우는 북관왕묘(北關王廟)가 지금 이미 준공되었으니 제식(祭式)과 절차는 동남묘(東南廟)의 규례대로 하라. 관서(關西)에 묘를 세운 것도 몇 해가 되니, 향(香)과 축문(祝文)을 봉송(封送)하는 절차를 성주(星州)와 안동(安東)의 규례대로 하고, 본도(本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권20, 고종 20년 9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에서

宮內府大臣署理成岐運奏: "崇義廟營建之役, 今已告竣矣。 奉安之節, 令掌禮院擇日舉行何如?" 允之。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이 아뢰기를,

"숭의묘(崇義廟)를 영건하는 공사를 지금 끝냈으니, 봉안(奉安)하는 의식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날을 택해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권43, 고종 40년 11월 27일 양력 3번째기사 에서



동묘 개원식, 1976-04-01.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item/6004>

- ❑ 1933년 조선총독부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으로 보물 지정
- ❑ 해방 이후 1963년 1월 21일에 동관왕묘를 보물 제142호 지정
- ❑ 197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주재 ‘동묘 공원화 사업’ 수행하며 기존 건축물 해체 및 보수

동묘 공원화계획에 |갈곳을 잃은 관성교

중앙일보 | 입력 1975.08.25 00:00

지면보기 ①

전국에 20만여명의 신도를 갖고 본부를 서울 동대문구 송인동238 동묘(보물1백42호) 구내에 두고있는 관성교(교주 이규택·36)가 서울시의 「동묘공원화계획」에 따라 밀려나 갈곳이 없게된다.

관우신상을 모시고 5대째 동묘구내 부속건물에서 살아온 교주 이씨는 25일 『폐허상태로 버려져 있는 동묘를 서울시가 복원하는데는 찬성이나 선조들의 호국염원을 계승한 관성교의 본산을 대책 없이 쫓아내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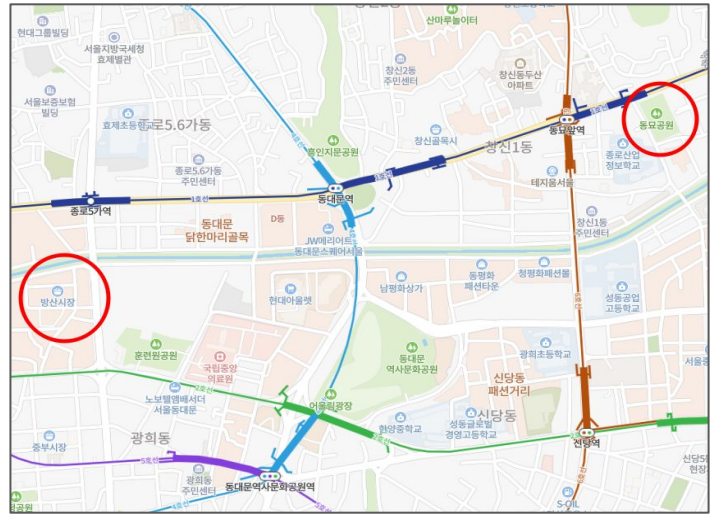
동묘는 임진왜란 당시 삼국지에 나오는 지용겸 장인관우의 신병이 왜병을 물아냈다는 전설에 따라 선조33년에 창건되었는데 현재 동묘외에 전국에 10여개의 관우의 영현을 모신 사당이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당국자는 이 건물은 동묘와는 별도로 교주가 건립한 것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전혀 없어 문화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 조정사업을 펴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묘 공원화계획에 갈곳을 잃은 관성교.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15280>

- ‘동묘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동묘 안에 세워졌던 관성교의 건물이 철거되고 사실상 소멸

공원으로 재조성된 동관왕묘




- ❑ 동관왕묘 인근 방산시장의 성제묘에서는 매년 10월 19일 방산시장 상조회 주재로 방산시장의 번성과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냄
- ❑ 성제묘의 제사에서는 관우의 재신(財神)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됨



- ❑ 어막대(御幕臺) 위의 화장실, 집수조 제거 후 복원 작업 진행
- ❑ “조선 국왕이 머물렀던 어막대는 화장실로 사용되면서 원형 훼손 뿐 아니라 조선의 권위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김재명·장경희, 2016)는 지적에 따름

- 한양도성 2022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통해 편찬된 데이터와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동관왕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단순히 만들어진 데이터의 검토와 활용의 과정에서뿐만 아닌, 데이터의 직접적인 수집과 편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유의미한 지식정보 획득이 가능하였다.
- 데이터의 관계망을 통해 일련의 흐름을 검토하였지만, 그 관계와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문학적 의미해석을 재생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동관왕묘의 인식 변화

감사합니다.